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접견

- 인사말 -

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민보다도 한국민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한·미 간의 목표는 일치한다. 지금은 북한이 조건 없이 회담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국들 간 상호신뢰가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.

동북아정세가 앞으로 유럽과 같이 평화와 공존의 구도로 갈 수도 있고, 한반도 인접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대립구조로 갈 수도 있는 불안한 측면이 있다.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동북아에서의 잠재적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.

동북아에서 지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을 토대로 이웃국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 "이러한 평화 지향적 동북아질서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